

- 해운대구의의회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

# **2015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독일,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해운대구 의회사무국

# 2015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 이번 독일,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의 국외연수는 국제적 감감을 익히고 경험함으로써 세계화 마인드 제고와 선진 의정활동 의식 함양을 기하고
- 지방자치 및 의회활동과 국토의 관광 상품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국가를 방문하여 우리구 접목 방안을 찾고자 함

## I

## 연수개요

### 1. 연수개요

- 연수기간: 2015. 4. 15. ~ 4. 22.(8일)
- 연수지역: 독일,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 연수인원: 19명(의원 16, 수행직원 3)
- 주요 방문지(방문기관 중심으로)
  - ▷ 독일 문헨 시청사 및 지방의회



문헨 시의회 방문



문헨 시청사 방문

※ 특이사항: 문헨 시청사의 경우 1층 및 지하를 일반인에게 상가 등으로 분양하여 사용중

▷ 자다르 시청사 및 파도 오로관, 그리팅 투더썬

		
자다르 시청사 방문	파도 오로관 시설견학	그리팅 투더썬 시설견학

※ 자다르 시청사를 방문 우리구에 접목할 수 있는 시설인 바다 오로관, 그리팅 투더썬 시설을 견학(자료 수집)

▷ 듀브로브니크 시청사 및 상·하원 건물 방문

	
듀브로브니크 시청사 방문	옛 상·하원 건물 방문

		
케이블카 시찰	세계최초의 검역소 방문	학교방문

※ 아름다운 해안선과 도시, 전 도시를 전망할 수 있는 정상을 향하는 케이블카, 학교방문, 최초의 검역소 방문 등



▷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 방문



국립공원 전체개요 설명



하방 호수

▷ 크로아티아 국회방문 및 대통령궁 견학, 광장(시장) 등 방문



국회방문



대통령궁 견학



돌라치 시장 시찰



대중교통(트램) 시찰

## 2. 연수팀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영문명	비고
1	의 장	이문환	LEE-MOONWHAN	인솔 총괄
2	부의장	이명원	LEE-MYUNGWON	부단장
3	의회운영위원장	임말숙	LIM-MALSUK	
4	기획관광행정위원장	황병두	HWANG-BYUNGDOO	
5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심윤정	Shim-yun-jung	
6	의 원	손유정	SHON-YUJUNG	
7	의 원	정성철	JEONG-SEONGCHEOL	
8	의 원	최영곤	CHOI-YOUNGGON	
9	의 원	박욱영	Park-wook-young	
10	의 원	서강식	SEO-KANGSIK	
11	의 원	홍성운	HONG-SEONGWOON	
12	의 원	조영진	JO-YOUNGJIN	
13	의 원	서정학	SEO-JUNGHAK	
14	의 원	오경미	O-kyeong-mi	
15	의 원	김삼수	Kim-sam soo	
16	의 원	유점자	YOU-JUM-JA	
17	사무국장	김성민	KIM-sung min	일정관리, 수행
18	직 원	김의현	KIM-sung min	"
19	직 원	김정현	Kim-Jung hyun	"

### 3. 연수일정

2015 해운대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일정		내용
제01일 4/15 수	12:15	인천공항 출발(원혜 공항) 원혜 시청사 및 의회 방문
	16:50	팔쁘부르크 이동 [소요시간: 2시간]
제02일 4/16 목	전일	슬로베니아로 이동(알프스 산지, 호반의 도시 블레드로 이동 - 4시간)
		[시찰] 블레드 호수, 블레드 성 조망, 블레드 섬 방문 - 자연환경 활용 관광자원 연계 현장 - 블레드 관광정책 및 자원 개발 자료 수집
		[방문] 슬로베니아 공공시설 및 도시 기반시설 벤치마킹 현장 방문 - 관광지 주변 공공 주차장 시설 관리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실태 - 방문지(포스토이나 동굴) 관광안내서비스 제도 및 운영, 질의응답 등
제03일 4/17 금	전일	크로아티아로 이동(국립공원 플리트비체 이동 - 4시간) [시찰] 유네스코 자연보호 구역인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 - 아름다운 자연의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 트래킹을 통한 달맞이 길 및 동해 남부폐선부지의 활용방안 검토
제03일 4/18 토	전일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인 듀브로브니크로 이동(4시간) [시찰] 옛 상.하원 건물인 렉터 궁전 및 플라차 거리 방문 - 의회제도 발전과정 검토 - 재래시장 관리 및 관광상품화 사항 자료 수집 - 크로아티아 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관리실태 현장 확인(해운대구 접목 방안 검토)

## 2015 해운대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일정		내용
제05일 4/19 일	전일	<p>아드리안 해안의 아름다운 세계문화 유산인 트로기르 방문(4시간)</p> <p>[방문] 트로기르 시청사 및 의회, 초등학교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로아티아(트로기르) 지방자치 및 의회운영 제도 파악(자료수집 및 질의응답)</li> <li>- 초등학교 운영사항 및 교육제도 교육자료 수집</li> </ul>
		<p>달마시안의 황홀한 꽃이란 스플리트로 이동(1시간)</p> <p>[시찰] 공공시설 및 도시 기반시설 시찰 현장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드리아해 연안 최대의 로마 유적 디오클레시안 궁전 방문</li> <li>-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해변 거리 리바거리 방문</li> </ul> <p>⇒ 구남로 및 해수욕장 해변로 비교 검토, 벤치마킹</p>
제06일 4/20 월	전일	<p>작은 플리트비체라고 불리는 라스토케로 이동(4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속 작은마을 라스토케(슬루니마을) 방문</li> </ul>
		<p>크로아티아 수도인 자그레브 이동(2시간)</p>
제07일 4/21 화	오전	<p>[방문 및 시찰] 크로아티아 의회 및 공공시설, 도시기반 시설, 역사적 현장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로아티아 의회 방문(지방자치 및 의회운영 제도 파악, 관련자료 수집 등)</li> <li>- 자그레브 대성당, 성 마르크 성당, 반엘라치치 광장 등 역사적 현장 방문 (주변 편의시설 및 시설관리 현황 파악)</li> <li>- 재래시장인 돌라치 시장 방문(재래시장의 관리실태 및 관광상품화 자료수집 등)</li> </ul>
	13:05 14:10 16:05	<p>자그레브 출발(문헨 향발)</p> <p>문헨 도착 후 환승</p> <p>문헨 출발(인천 향발)</p>
제08일 4/22 수	09:25	인천 도착

## II

## 연수지역 개요

### □ 독일(문헨)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의 주도. 다뉴브 강 지류인 이자어 강 중류 연안에 있음. [다른 이름]뮌헨 Munich([영국](#)). 인구 125만 6000명. 이 나라 남부의 경제 · 문화 중심지. 맥주양조업 외에 정밀기계 · 전기 · 화학기계 · 기성복제조 · 도자기공업이 발달. 12세기의 페터스키르헤, 15세기의 사원 · 교회 · 궁전 등 사적이 많음. 1923년 이곳에서 히틀러가 혁명을 꾀하고 이후 나치당 활동의 본거지가 됐음. 제2차 세계대전 중 심한 폭격으로 크게 파괴됐음. 1972년 올림픽 개최지. 1472년 설립된 문헨 대학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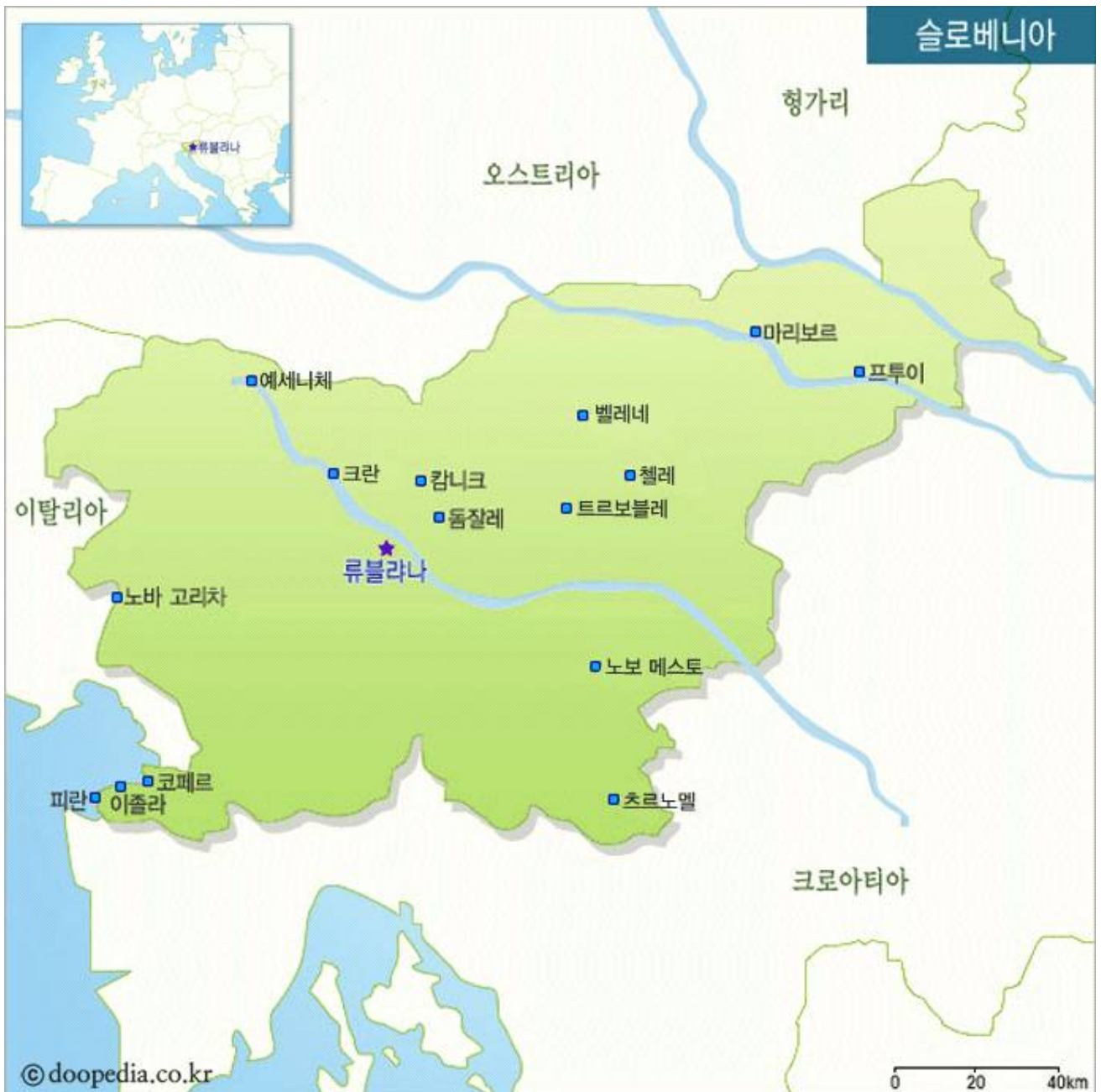
### □ 슬로베니아



유럽 발칸반도 북서부에 있는 나라로서 1918년 12월 다민족국가인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일명 베오그라드왕국)의 일원이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연방의 하나가 되었지만, 1991년 유고슬라비아연방의 해체와 함께 내전을 거쳐 독립하였다.

정식명칭은 슬로베니아공화국(Republic of Slovenia)이다. 알프스산지의 동쪽 산록에 자리잡고 있어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고산국가이다. 북쪽으로 [오스트리아](#), 동쪽으로 [헝가리](#)와 [크로아티아](#), 서쪽으로 [이탈리아](#), 남쪽으로는 [크로아티아](#)와 국경을 접하며, 국경의 일부가 남서쪽으로 아드리아해의 파란만과 면한다. 2004년 NATO와 EU에 가입하였다. 아드리아해의 파란만을 둘러싸고 [크로아티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연안 출구의 갈등을 겪고 있다. 행정구역은 182개주(obcina)와 11개시(mestnaobcina)로 되어 있다.





슬로베니아의 주민은 슬로베니아라는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6세기부터 이주해온 남슬라브 계통으로, 2002년 현재 슬로베니아인이 83.1%, 세르비아인이 2%, 크로아티아인이 1.8%, 기타 민족이 12%를 차지한다. 슬로베니아인은 남슬라브어군에 속하는 슬로베니아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들은 세르보 크로아티아어를 사용하고 있다. 2002년 종교 구성비를 보면 가톨릭교도가 57.8%, 이슬람교 2.4%, 동방교회 2.3%, 기타 기독교 0.9%, 나머지 36.9%를 차지한다. 남부슬라브어를 사용하지만 종교가 민족 구성의 기준이 되어 복잡하다.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은 대부분이 가톨릭을 신봉하고 있다.

6세기에 남하한 남슬라브족 중에서 일부가 [사바강](#) 유역을 중심으로 627년 슬로베니아 왕국을 건설하였다. 이들을 슬로베니아인이라고 부른다. 8세기에는 바이에른과 프랑켄에 속했으나 그후 [카롤링거왕조](#)의 프랑크 왕국 치하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서유럽](#) 문화권에 편입되었다. 슬로베니아는 10세기에 신성로마제국, 14세기에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家)의 지배를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슬로베니아는 영국과 러시아의 연합국에 가담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와 전쟁을 치렀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전쟁에서 패배하자 [오스트리아](#) 제국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호기임을 알아차리고 남슬라브족임을 내세워 [오스트리아](#)로부터의 민족해방운동에 가담하였다. 같은 남슬라브족인 [세르비아](#)-[크로아티아](#)와 함께 종교적 다민족국가인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을 세웠다. 1918년 12월 [베오그라드](#)에서 왕국의 성립이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이른바 [베오그라드](#)왕국의 영토에는 과거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해 있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 비롯하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보이보디나](#), [달마티아](#), 마케도니아와 함께 슬로베니아도 편입되었다. 1929년에는 유고슬라비아로 불렸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에 점령되었으나, 대전 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의 성립과 함께 그의 일원이 되었다.

1989년 9월 슬로베니아는 구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으로부터의 이탈을 명시한 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1990년 4월 슬로베니아 공화국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공산당이 패배하여 5월에 비(非)공산정권이 발족하였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두 공화국은 연방 최대 민족인 [세르비아](#) 민족에 대한 반감과 경제적으로도 [몬테네그로](#) 등 농업중심의 연방 남부 공화국에 대한 경제부담이 컸다. 그래서 1990년 7월에는 주권을 선언하고 12월 국민투표 결과 90%가 독립을 지지하여 1991년 6월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연방을 유지하려는 [세르비아](#)와의 대립이 격화되어 구유고슬라비아 연방군이 슬로베니아를 침공, 슬로베니아 방위군과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져 수도 류블랴나 공항을 연방군이 폐쇄하였다. 그러나 곧 휴전으로 10월에 연방군이 철수하였다. 1991년 12월

독일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승인하고, 1992년 1월에 EU도 독립을 승인하였다. 5월에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함께 UN에 가입하고, 8월 신유고슬라비아연방이 슬로베니아의 독립을 승인하여 12월에는 독립 후 최초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1991년 12월 23일 채택된 헌법에 의하면 국가원수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임기 5년의 대통령(연임 가능)으로, 독립 이후 초대대통령은 밀란 쿠찬(MilanKucan)이었다. 다수당 당수나 연합 지도자를 수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다.

의회는 상·하 [양원제](#)이며 하원 총 90석 중에서 40석은 선출에 의하여, 50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상원에는 헝가리와 이탈리아인을 위하여 각각 1석을 배정하도록 헌법은 명시하고 있다. 사회, 경제, 지방별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은 40석으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한다. 법률을 제안하고 하원의 안건을 심의하며 국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하원에서 판사가 지명되는 대법원, 하원 및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되는 9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이 있으며, 행정 조직으로는 전국적으로 182개 자치조직과 11개의 자치시가 있다. 2004년 NATO와 EU에 가입하여 서방과의 경제협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슬로베니아의 문화는 발칸반도의 서북쪽 끝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 게르만문화, 라틴문화, 슬라브문화 요소가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특징을 지닌다. 먼저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은 슬로베니아인들의 문자해득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켰다. 1518년 주리즈 달마틴(JurijDalmatin)은 [성경](#)을 슬로베니아어로 최초로 번역하고 아담 보히릭(AdamBohiric)은 슬로베니아어 문법서를 저술하여 문화적 기초를 세웠다.

슬로베니아어로 된 [희곡](#) 및 시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융성하였으며, 시인으로는 발렌틴 보드닉(ValentinVodnik), [희곡](#)작가로는 안톤 린하트(Anton T. Linhart)가 유명하다. 이들은 작품을 통해 프랑스혁명과 계몽주의의 자유정신을 표현하였다. 또한 변호사이자 사상가 겸 낭만시인인 프란체 프레세렌(FrancePreseren)은 [낭만주의](#) 영향을 받은 민족적인 시를 통해 슬로베니아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였으며, 그의 시

《축배 Zdravljica》는 슬로베니아 국가의 가사가 되었다.

19세기에는 유럽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슬로베니아에서도 소설이 번창하였으며, 당시 소설가 중에서 조십 주릭(Josip Juric)이 유명하며, 그는 문화평론 분야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시인이자 언어학자인 코파타르는 1809년 처음으로 슬로베니아어 문법책을 출판하였다. 20세기 초 문화작품은 유럽의 [상징주의](#)와 퇴폐주의 영향을 받았으며 시인으로서는 먼 알레코안드로프(Murn Aleko Androv), 드라고틴 케테(Dragotin Kette)가 저명하고, [희곡](#)작가 이반 산카(Ivan Cankar)는 산업화 및 [자본주의](#) 성장에 따른 전통적 가치의 해체를 상징적으로 묘사하였으며, 범(汎)유고슬라비아 사상을 전파하였다.

민족음악은 8세기 이후의 기독교화 과정을 통해 합창을 중요시하게 되고, 중세에는 [종교음악](#)이 주류를 이루었다. 18세기에 들어와 근대음악의 여건이 형성되고, [고전주의](#)와 [이탈리아 오페라](#)의 영향을 받았다. 19세기 [낭만주의](#) 음악 시대에는 벤자민 이파벵(Benjamin Ipavec), 리스토 사빈(Risto Savin) 등이 활동하였으며, [낭만주의](#) 시대 이후 현대 음악가로는 마리즈 코고즈(Marij Kogoj), 슬라프코 오스테르크(Slavko Osterc) 등이 유명하다. 삼중창단 트루타모라 슬로베니차는 슬로베니아 전통 [모음곡](#)을 편찬하여 전통음악의 뿌리를 되찾았다.

슬로베니아의 조각 및 회화는 교회건축물의 장식 미술로서 발전하였으며, 현대에 와서는 아즈베(Azbe), 자코픽(Jakopic), 스테넨(Sternen), 자마(Jama), 그로하(Grohar) 등이 화가로서 유명하다. 건축가 요세 프레츠니크는 슬로베니아의 유명한 건물과 공공광장들을 많이 설계하였다.

한국은 1992년 4월 슬로베니아를 승인하였고 1992년 11월 정식으로 국교를 맺었다. 수도인 [류블랴나](#)에는 대한무역진흥공사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양국 간에는 1994년 과학·기술협력협정, 1997년 문화협력협정, 2001년 [원자력](#)안전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한편, 슬로베니아와 [북한](#)은 1992년 6월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2006년 대한(對韓)수출이 2452만 달러이고 대한수입이 1억 4776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제약원료, 회전기기이고 수입품은 자동차부품, 핸드폰 등이다

## □ 크로아티아



정식명칭은 크로아티아공화국(Republic of Croatia)이며 크로아티아어로는 레푸블리카 흐르바트스카 (Republika Hrvatska)라고 한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크로아티아를 흐르바츠키(Hrvatska)라고 부른다

제1차 세계대전 후 1918년에 수립된 남부 슬라브족 다민족국가인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1929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개칭)을 거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일원이 되었고,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와 내전을 거쳐 1991년 6월 분리 독립하였다.

국가 형태는 공화국이며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이다. 2011년 8월 현재 대통령은 [이보 요시포비치\(Ivo Josipović\)](#)이며 총리는 [야드란카 코소르\(Jadranka Kosor\)](#)이고 외무 장관은 [고르단 얀드로코비치\(Gordan Jandroković\)](#)이다. 단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있으며 임기는 4년제로 2011년 현재 [루카 베비치\(Luka Bebić\)](#)가 의장을 맡고 있다. 2007년 11월 25일 총선 결과 2010년 현재 의석은 총 153석이다. 1991년 6월 25일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에서 분리 독립을 선언했으며 1992년 5월에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 가입했다. 독립일은 1991년 6월 25일이다.

크로아티아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459억 유로이며 1인당 GDP는 10,745 유로이다. 2009년 기준 물가 상승률은 2.4%, 외채는 599억 달러이며, 외환 보유고는 144억 달러이다. 무역 규모는 수출 104억 달러, 수입 212억 달러로 총 316억 달러이며 주요 산업은 금속, 식물, 농업, 목재, 식품, 전기, 관광, 원유, 조선 등이다.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중서부의 알프스 산맥과 지중해 사이, 유럽 아드리아 해 동부 해안에 위치하며 헝가리,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접경하고 있다. 면적은 56,594km<sup>2</sup>로 한반도의 4분의 1 크기이며 인구는 2012년 기준으로 약 4,490천명이다. 수도는 [자그레브\(Zagreb\)](#)로 약 8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로 스



플리트(Split), 오시예크(Osijek), 리예카(Rijeka), 두브로브니크(Dubrovnik)가 있다.

남부 해안 지역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이며 북부 내륙 지역은 대륙성 기후 특징을 보인다. 공식 언어는 크로아티아어이고 슬라브계 언어로 라틴문자를 사용한다. 민족 구성은 크로아티아인 89.6%, 세르비아인 4.5%로 이루어져 있고 종교는 가톨릭(88%), 세르비아정교(4%), 이슬람교도(1%) 등이다. 표준 시각은 그리니치평균시 보다 한 시간 빠르며 한국 시각보다 8시간 늦다. 의무교육 기간은 8년이다. 화폐단위는 쿠나(KUNA)로 2010년 8월 기준으로 1달러는 약 5.5쿠나이다.

### 크로아티아 개관

국명	크로아티아공화국(Republic of Croatia(영어), Republika Hrvatska(크로아티아어))
위치	중남부 유럽, 이탈리아 반도의 동쪽 아드리아해 건너편에 위치함. 발칸 반도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음.
면적	56,594km <sup>2</sup> (한반도의 1/4), 해안선 6,176km(본토 1,778 KM)
민족	크로아티아인(89.6%), 세르비아인(4.5%) (2001년 기준)
언어	크로아티아어(라틴문자 사용)
문자	라틴문자
기후	지중해성(아드리아해 연안), 대륙성 기후(북동부 지역)
인구	4,490천명(2012년 기준)
수도	자그레브(Zagreb)
국가형태	공화국
정부형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
종교	가톨릭(88%), 세르비아정교(4%), 이슬람교도(1%) 등
교육	의무교육 8년
GDP	459억 유로
화폐단위	쿠나(Kuna). 2010년 8월 기준 1달러=약 5.5쿠나
독립일	1991.6.25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

크로아티아는 기원전 3세기에 로마와 접촉했고 4세기 초에 고트족, 5세기에 훈족의 침입을 받았다. 6세기에는 슬라브인과 아바르(Avar: 5세기~9세기에 중앙아시아·동유럽·중앙유럽에서 활동한 몽골계 유목민)인이 들어왔고 9세기에 슬라브라는 이름과 함께 크로아티아라는 이름이 처음 나타났다. 크로아티아는 12세기 초 비잔틴 제국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1102년부터 1918년까지 헝가리 왕국과 연합했으며, 1868년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1918년 크로아티아는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하고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을 결성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나치의 괴뢰정권이 나라를 세우기도 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요시프 브로즈 티토(Josip Broz Tito)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인민공화국에 편입되었다. 그 뒤 1990년대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해체와 내전을 거쳐 1991년 6월 분리 독립하였다.

크로아티아는 대통령 직선제하의 의원내각제이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제였다가 2001년 3월 상원을 폐지하고 단원제 의회를 채택했으며 임기는 4년이다. 1991년 독립공화국으로 된 이후 최초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프라뇨 투지만\(Franjo Tuđman\)](#)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투지만 대통령의 사망 후 2000년 1월 [스체판 메시치\(Stipe Mesić\)](#) 대통령이 당선되어 민주정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행정구역은 20개 주와 1개 시로 이루어져 있다.

크로아티아의 전통문화는 이 지역에 14세기 이전부터 정착된 로마 가톨릭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하였고, 민속 풍습 및 의식들이 가톨릭 성일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고대 일리리아(Illyria), 그리스, 로마제국 및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생활 방식에 영향을 받았으며,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등 다양한 시대별 유물들이 혼재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내륙 지역은 중부 유럽의 영향을 받았고, 해안 지역은 이탈리아 및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는 건축, 미술, 음악, 식생활 문화 등에 깊숙이 반영되어 있다.

크로아티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주변 강대국들이 지속적인 압력을 받았음에도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왔으며, 복잡한 역사·사회·정치·문화·환경 속에서도 전통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아울러 독창적인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발명가 및 예술가들을 배출했으며 유네스코(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지정한 6개의 세계문화유산 및 1개의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 4월 15일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승인했고 같은 해 11월 18일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주(駐)헝가리대사가 크로아티아 대사를 겸임했다. 2005년 12월 12일에는 주(駐)크로아티아 상주 공관을 설치했으며 2007년 11월 27일 주크로아티아 대사관으로 승격하여 같은 해 12월 11일 변대호 초대 대사가 부임했다. 2010년 3월 15일에는 박성웅 크로아티아 대사가 부임했다.

한국과 크로아티아의 주요 인사교류로 2006년 4월 크로아티아의 대통령 스테판 메시치(Stjepan Mesić)가 한국을 방문했으며, 한국 인사(대통령급)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크로아티아는 1993년 이래 기자재 공여, 연수생 초청 사업 등의 형태로 협력해왔으며 한국은 2001년까지 약 20만 달러를 크로아티아에 지원했다. 2003년에는 리예카 항에 크레인 설치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도 있었으나, 크로아티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이후 이렇다 할 사업 지원은 중단된 상태이다. 2010년 8월 현재 현지에 진출 우리 업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대자동차, LG, 삼성 등 현지법인으로 우리 주재원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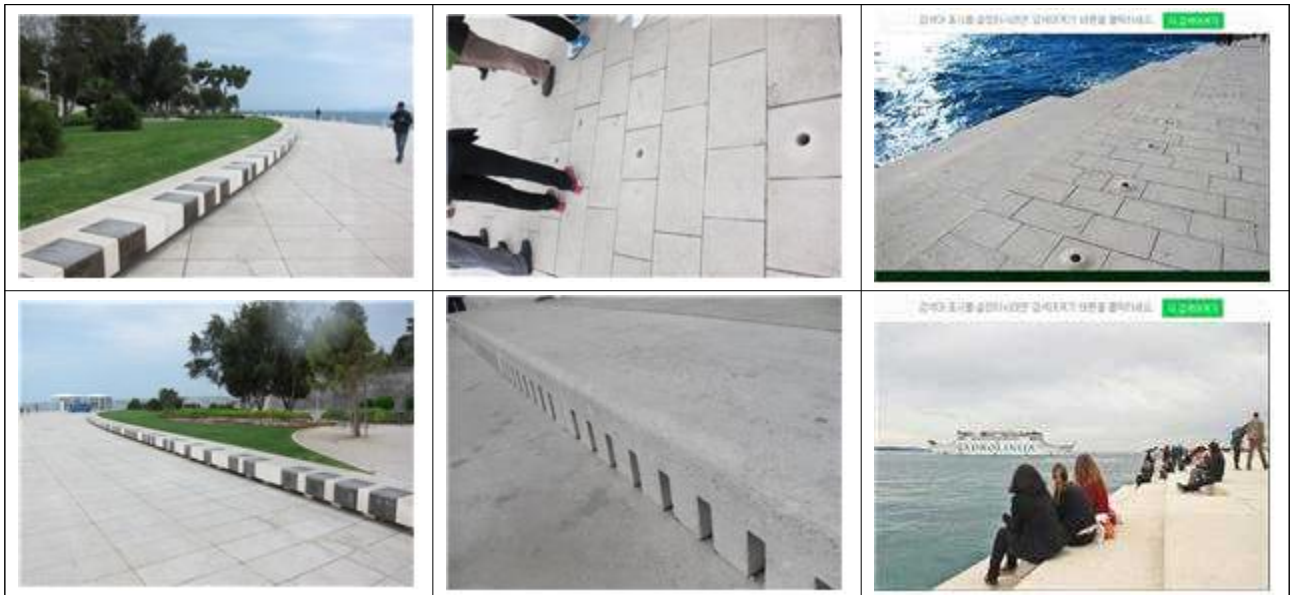
### III

## 연수지역의 우리구 접목사항

#### □ 자다르 지역

##### ○ 바다 오르관(Moske Orgulj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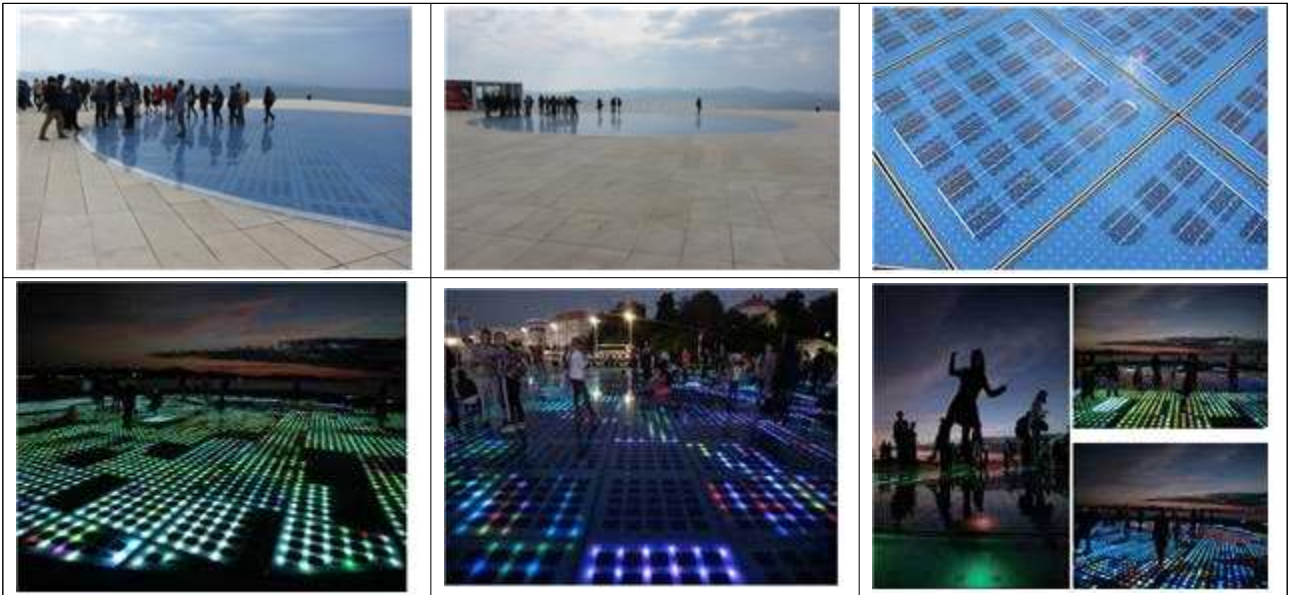
- ▶ 파이프와 호루라기의 원리를 응용하여 건축가 니콜라 바시치가 2005년 디자인하여 만든 관광 명소
- ▶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보도에 설치된 75m 길이의 35개 파이프에서 파도의 밀·썰물을 이용하여 파도의 크기 및 바람이 불면 다양한 소리가 나도록 설계한 것으로 아드리아해의 아름다운 석양과 어울려 환상적인 연주를 함
- ▶ 접목사항: 자다르는 3천년의 역사를 가진 해변도시로 로마시대 광장유적지 등 수많은 역사유물 도시로도 유명하지만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석양으로도 유명함. 해운대구와 유사한 점은 아름다운 해안선과 멋진 석양을 가진 세계적인 관광 명소란 점인 것 같다. 하여 해운대구 미포지역에 바다 오르관을 설치하여 해운대구의 명품관광 명소와 사계절 해수욕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필요성 있음.



- ※ 입지 여건은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적은 미포가 좋을 것임(파도로 인해 상시 다양한 소리가 남으로 주민들의 생활공간 주변은 소음민원의 소지가 많음)

## ○ 그리팅 투더썬(Greeting to the sun)

- ▷ 그리팅 투더썬은 바다오르관을 제작한 니콜라 바시치가 설계한 “태양을 향한 인사”란 이름의 태양광전지판을 이용한 조명경관으로 태양력 전자판과 발광 다이오드로 만든 원형 기판으로 낮에 축적한 태양력을 저장하였다가 해가지면 자동으로 다양한 문형으로 자동으로 발광하는 시스템



- ※ 세계적인 명소 해운대해수욕장을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핫 플레이스, 이벤트 광장을 대상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사업은 국비 신청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

## □ 듀브로브니크 지역

### ○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및 케이블카

- ▷ 이 도시는 7세기 도시가 형성된 아드리아해에 면한 달마티아 해안에 있는 작은 도시로 해상무역 중심 도시국가인 라구사공화국으로 시작되어 아드리아해의 진주로 불리는 아름다운 해안도시  
1667년 큰 지진으로 도시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다가 나폴레옹 전쟁 때 다시 옛날의 번영을 누렸다.  
1994년 구시가지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었다. 1999년부터 도시 복원작업이 시작되어



[성채](#), 왕궁, 수도원, 교회 등 역사적인 기념물 가운데 가장 크게 손상된 건물들이 복원되었고 옛 명성을 되찾을 만큼 아름다운 해안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 ▷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전망대를 만들고 이곳을 손쉽게 올라갈 수 있는 케이블카를 조성하여 관광객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미포에 해운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특히 야간의 해운대 야경조망을 상품화) 그리고, 해운대 일원을 주·야간으로 조망할 수 있는 케이블카 설치도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전망대에 관광객이 즐길 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기념주화 만들기 이벤트 상품화)

#### □ 슬로베니아 블레드 지역

- 블레드는 [슬로베니아](#)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은 188.5km<sup>2</sup>, 인구는 10,899명, 인구 밀도는 57.8명/km<sup>2</sup>이며 [율리안알프스 산맥](#)과 접한 관광 명소이다

- ▷ 1004년 4월 10일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히 2세 황제가 브릭센의 주교인 알부인 1세에게 하사하면서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 1278년 신성 로마 제국의 루돌프 1세 황제가 보헤미아의 왕인 오토카르 2세를 격파하면서 크란스카 지방을 획득하게 된다.
- 1364년부터 1919년까지는 펠데스(Veldes)라고 불렸으며 그 당시에는 크란스카 공국의 일부였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시대였던 1809년부터 1816년까지는 일리리아 주에 속해 있었다.
- 슬로베니아를 대표하는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이다. 빙하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호수인 블레드 호수로 유명하며 블레드 호수 주위에는 바위로 만든 블레드성이 있다.
- 블레드 호수안에 있는 블레드 섬은 플레타나(pletana)라고 부르는 나룻배를 타고 갈 수 있다. 블레드 섬에는 성모마리아 승천 성당이 있는데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는 종을 울리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린다. 블레드 섬에는 선사시대에 사람이 살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는 슬라브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과 풍요의 여신인 지바(Živa)의 성지로 여겨졌다.
- 블레드 섬에는 계단 99개가 있으며 전통적인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등 위에 오른 채로 계단 99개를 오른다. 이 때 신부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에 침묵해야 한다



※ 이 지역은 잘 보전된 자연과 스토리텔링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것과 달맞이 길, 동해 남부선 폐선부지의 자연친화적 발전과 보전계획을 통해 해운대만의 스토리를 합친다면 관광특구 해운대의 큰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임

#### □ 슬로베니아 포스토이나 동굴

- 포스토이나 동굴은 슬로베니아의 포스토이나 근처에 자리한 긴 카르스트 동굴계로 길이는 20,570m이다.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긴 동굴이며 관광 명소이다. 이 동굴은 피브카 강(PivkaRiver)의 유수 작용에 의해 생성되었다. 동굴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혈거 양서류로 토착종인 올름(olm)이 웅덩이에 서식한다.
- ▷ 동굴의 발견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문헌 상으로는 17세기 야네즈 바이카르드 발바소르가 최초로 이 동굴에 대해 기술했다. 1818년에 새로 발견된 부분은 주민 루카 체치가 오스트리아 최초의 황제인 프란시스 1세의 방문에 대비하여 기존에 알려져 있던 구간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우연히 발견하였다. 1819년에 이 동굴은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체치는 이 동굴 최초의 동굴관광 안내자가 되었다.
- ▷ 1884년에는 전기조명이 설치되었는데, 그것은 당시 동굴이 있던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카르니올라주의 수도 류블리아나에 전기조명이 설치된 때보다 더 이른 것이었다. 1872년에는 관광객을 위한 최초의 동굴열차와 함께 철도가 부설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스기관차가 도입되었고 1945년 이후에는 전기기관차로 대체되었다. 일반에게 공개된 구간은 전체 동굴 가운데 5.3km로 일반인의 관람코스로는 세계에서 가장 길다.
- ▷ 이 동굴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혈거도롱뇽인 이 고장 특유의 올름(동굴도롱뇽붙이)이 서식하는 곳이다. 동굴을 통과하는 관광노선에 올름이 서식하는 웅덩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올름을 직접 볼 수 있다.





※ 슬로베니아란 나라에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의 입구에서 우리나라 국기를 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음. 그리고 동굴내 관광객을 위한 꼬마기차, 자연환경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의 편의시설 구비 및 관광상품화 등 보전을 통한 자연과의 조화가 가장 좋은 점 이었음

#### □ 자그레브

○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다. 크로아티아 북부 내륙에 자리 잡은 전형적인 중유럽 도시로 1557년 이래 크로아티아 행정·문화의 중심지이자 수도로 기능하고 있으며, 동서양의 가교이자 최대 공업 도시로서 육상과 항공 교통의 중심지이다.

- ▷ 17세기~18세기에 걸쳐 대화재와 전염병으로 인해 도시로서 번성이 주춤하였으나, 1776년 왕실 의회와 왕실 총독부가 옮겨진 후부터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유고슬라비아 왕국(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에 가담하여 자그레브(Zagreb) 관할 구역이 확대되면서 1920년대 인구가 70%가량 증가하고 점차 중심지로서 입지를 다졌다.
- ▷ 이후 자그레브는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시절에 수도 베오그라드를 잇는 제2의 도시이자 연방의 경제 중심지가 되었다. 유고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전쟁 당시 유고군의 공격을 받았으나, 큰 피해는 없었으며 독립 후 크로아티아의 수도가 되었다.

## ○ 재래시장 및 대중교통 체험



※ 광장을 이용한 시장문화를 둘러보고 해운대시장 등 상시시장이 아니고 일정시간을 지정하여 시장을 개설하고 이용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음. 차량진입 방지봉은 상시 운영하지 않고 주간시간 대만 차량을 막아 노천카페 등을 운영함. 한편 대중교통 트램은 도심내 일정거리만 설치하여 관광상품화 및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해운대구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방안 검토)

⇒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만들어서 내·외국인이 이용하게 한 것은 대형호텔이 많은 해운대구에서 한번 검토하여 관광특구 해운대에 맞는 시스템을 건의 할 필요성 있음

## IV

## 2015년 국외연수의 느낀 점

- 국외연수 출발 전 자료의 수집과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끼면서 해운대구 접목방법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어 좋았으며
-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 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편안함을 제공하여 최근 가장 큰 이슈중 하나인 “힐링”이란 아이템과 접목할 수 있어 좋았음(달맞이 길, 폐선부지 등 개발에 반드시 필요)